#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e-mail:yihyangmi@ekr.or.kr

#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immigrant women working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 rural areas

Hyangmi Yi*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 약

우리나라는 이미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정부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농촌생활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시 자료(raw data)를 활용해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그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다문화이주여성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자득점을 활용해 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 1. 서론

2023년 우리나라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4천 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를 차지하고 있어, '다인종·다민족 국가' 기준이 되는 외국인 비중 5%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에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 후 20여년만에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10년에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수립, 2011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하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06년에 21개소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316개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는 2007년 87,964명에서 2020년 173,756명으로 지난 10여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중 여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79.5%에서 85.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여자이고, 이들은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이주여성은 농촌지역 소멸 대응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2010년 876만 명에서 2050년 무렵에는 약 84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감소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그리고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지역내 정착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20명을 심층면담한 김기홍(2011)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이 자신이 기대했던 풍요로운 공간과 거리가 멀고,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은 경험의 핵심이고,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한 이웃의 부재와 폐쇄적인 환경 등으로 인한 고립감과 교류단절, 가족들의 몰이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다문화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문화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경기, 전북, 경북과 같이 광역 지자체를 지역표집으로 선정해(조원지·정치형, 2022) 전국으로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전국 50개 마을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양순미(2010) 연구결과, 자신들의 가족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향후 농업활동참여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향후 지역사회활동 참여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

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혜정(2015)의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오래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농촌지역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그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이주여성 유형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인자득점을 활용해 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 2. 이용자료와 분석방법

### 2.1 이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시 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수집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대상으로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기타 일반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5,578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36.7%(5,710명)는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한다. 농촌지역 거주자 중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371명이고, 이 중에서 여성은 362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1.0세이고,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13.5년이다. 그리고 이들의 50.8%는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10.1%만 500만 원 이상이다. 한편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3.3%만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이들의 정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참여율 96.3%), 재산관리에는 42.9%만 참여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이주여성은 33.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농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농촌생활 어려운 점은 외로움 24.3%, 자녀양육 13.8%, 언어문제 11.3% 순으로 많다. 그리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은 47.5%이고, 0.2%만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정책 수요는 한국생활 준비나 적응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사회적응에 대해 많고, 직업훈련, 일자리소개, 창업지원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책 수요는 타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례로 창업지원 수요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적다.

이와같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 배우자 만족도는 3.8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표 1]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주요 특징

| 구분 | | 비고 | 평균값 |
|---|---|---|---|
| 연령 | | 세 | 41.038 |
| 한국거주기간 | | 년 | 13.505 |
| 월 평균 소득 | 300만원 미만 | 예=1, otherwise=0 | 0.508 |
| | 300-400만원 | 예=1, otherwise=0 | 0.256 |
| | 400-500만원 | 예=1, otherwise=0 | 0.132 |
| | 500-600만원 | 예=1, otherwise=0 | 0.063 |
| | 600만원 이상 | 예=1, otherwise=0 | 0.038 |
| 초등학교 이상 학력 | | 예=1, otherwise=0 | 0.033 |
| 배우자 만족도[a)] | | 리커트 5점 척도 | 3.834 |
| 가사노동 참여 | | 예=1, otherwise=0 | 0.963 |
| 재산관리 참여 | | 예=1, otherwise=0 | 0.429 |
| 생활 어려움 | 없음 | 예=1, otherwise=0 | 0.334 |
| | 외로움 | 예=1, otherwise=0 | 0.243 |
| | 가족 갈등 | 예=1, otherwise=0 | 0.049 |
| | 자녀 양육 | 예=1, otherwise=0 | 0.138 |
| | 경제적 어려움 | 예=1, otherwise=0 | 0.060 |
| | 언어문제 | 예=1, otherwise=0 | 0.113 |
|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준비[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671 |
| | 사회적응교육[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762 |
| | 통번역 서비스[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552 |
| | 임신출산[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541 |
| | 사회적응[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325 |
| | 각종 상담[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455 |
| | 직업훈련[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102 |
| | 일자리 소개[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171 |
| | 창업지원[b)]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2.850 |
| 생활만족도[a)] | | 리커트 5점 척도 평균 | 3.936 |
| 사회적 지위 | 상 | 예=1, otherwise=0 | 0.002 |
| | 중 | 예=1, otherwise=0 | 0.019 |
| | 하 | 예=1, otherwise=0 | 0.281 |
| 노후준비 | | 예=1, otherwise=0 | 0.475 |

주 1 : a) 측정은 1 =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 만족하지 않음, 3 = 보통, 4 = 만족함, 5 = 매우 만족함

주 2 : b) 측정은 1 = 전혀 필요 없음, 2 = 필요 없음, 3 = 보통, 4 = 필요함, 5 = 매우 필요함

자료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시자료 분석

###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특징을 이들의 유형화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표 1>의 변수들로부터 전체변동의 어느 정도 수준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주요한 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인자들만을 선정하였다.

한편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범주변수로 범주가 서열척도(order scale)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위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 $R_i^*$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일 때, 이것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R_i^* = x_i'\beta + \nu_i$

여기서 $x_i$는 설명변수 벡터, $\beta$는 추정계수 벡터(vector)이고, $\nu$는 오차항이다. 그리고 생활만족도 정도를 1부터 $J$까지

의 값을 갖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식 (2)와 같이 $R_i$의 대용변수가 분석에 사용된다. $R_1 = j$일 확률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전체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 $N$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식 (4)와 같다. 이 전체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식 (2) $R_i = 1$ if $R_i^* \leq \nu_0$, $\cdots$, $R_i = J$ if $R_i^* > \nu_{J-2}$

식 (3)

$$\Pr(R_i = 1) = \Phi(-\beta x_i), \cdots, \Pr(R_i = J) = 1 - \Phi(\nu_{j-2} - \beta x_i)$$

식 (4) $$\log L = \sum_{i=1}^{N}\sum_{j=1}^{J} M_{ij} \log[\Phi(\nu_j - \beta x_i) - \Phi(\nu_{j-1} - \beta x_i)]$$

## 3. 분석 결과

### 3.1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 유형화

<표 1>과 같이 변수들의 측정 정도가 달라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 시 31개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인자득점을 활용하였다. Bartle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주성분 분석이 적합하고, 각 변수간 공통인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공통인자는 8개로 추출되었고, 이 8개 공통인자의 누적 기여율은 57.8%이다. <표 2>는 추출된 인자들에 대한 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제1요인은 농촌생활 정책 수요 인자, 제2요인은 배우자만족 인자, 제3요인은 한국거주기간 인자, 제4요인은 소득 인자, 제5요인은 언어문제로 인한 가사 미참여 인자, 제6요인은 노후준비 인자, 제7인자는 양육 인자, 제8요인은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 인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된 8개 인자에 대해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이 갖는 인자득점을 활용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집 수 결정을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후 비계층적 k-medians 군집분석으로 주어진 군집수로 이들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총 5개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표 2>는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유형별 평균 인자득점이다.

한편 식 (4)로 추정된 계수값은 각 변수별 영향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독립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변화를 나타내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3요인인 한국거주기간이 1년 많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는 1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농촌생활 만족도는 6.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제1요인인 한국사회 생활 정책 수요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농촌생활만족도는 3.1% 감소하고, 제2요인인 배우자에 대해 만족할수록 농촌생활 만족도는 1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농촌생활 만족도는 8.9% 감소하고, 제8요인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농촌생활만족도는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농촌생활 만족도에는 제5요인인 언어문제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89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소멸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후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농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거주기간 인자는 농림어업 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을 농업경영주로 육성하고, 이들을 새로 유입되는 다문화이주여성의 멘토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만족 인자가 높을수록 농림어업 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농촌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다문화이주여성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노후준비 인자는 농림어업 종사 다문화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노후준비 인자에는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가족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준비안된 노후 등은 농림어업 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가족내 갈등 해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공사례 공유로 다문화이주여성 간 정보 제공 및 활용 네트

워크 구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표 2] 요인분석을 통한 각 인자별 부하량

| 구분 | 제1인자 | 제2인자 | 제3인자 | 제4인자 | 제5인자 | 제6인자 | 제7인자 | 제8인자 |
|---|---|---|---|---|---|---|---|---|
| 연령 | -0.37 | -0.11 | **0.70** | 0.27 | 0.06 | -0.10 | 0.04 | 0.05 |
| 한국거주기간 | -0.29 | -0.10 | **0.68** | 0.33 | -0.06 | -0.12 | 0.18 | 0.10 |
| 월 소득 300만원 미만 | 0.14 | -0.36 | 0.45 | **-0.60** | -0.14 | 0.11 | 0.12 | -0.07 |
| 월 소득 300-400만원 | -0.00 | -0.03 | -0.38 | **0.73** | -0.00 | -0.02 | -0.12 | 0.12 |
| 월 소득 400-500만원 | -0.10 | 0.36 | 0.01 | 0.00 | **0.42** | -0.12 | -0.23 | 0.07 |
| 월 소득 500-600만원 | -0.05 | 0.17 | -0.14 | -0.04 | -0.12 | **-0.37** | 0.15 | -0.27 |
| 월 소득 600만원 이상 | -0.08 | 0.14 | -0.14 | -0.05 | -0.20 | **-0.22** | 0.18 | 0.12 |
| 초등학교 이상 학력 | -0.12 | 0.15 | -0.00 | 0.03 | 0.29 | **0.32** | -0.24 | -0.08 |
| 배우자 만족도 | -0.02 | **0.60** | -0.06 | -0.07 | -0.01 | 0.14 | -0.08 | -0.19 |
| 가사노동 참여 | -0.00 | 0.02 | -0.05 | -0.03 | **-0.52** | 0.20 | 0.06 | 0.31 |
| 재산관리 참여 | -0.08 | 0.03 | 0.01 | 0.15 | -0.03 | 0.10 | 0.09 | **0.43** |
| 농촌생활 어려움 없음 | -0.42 | 0.33 | 0.21 | 0.21 | 0.12 | **0.22** | 0.02 | 0.03 |
| 외로움 | 0.25 | -0.09 | 0.11 | -0.31 | -0.30 | -0.18 | **-0.68** | 0.09 |
| 가족 갈등 어려움 | 0.09 | -0.11 | -0.11 | 0.26 | 0.11 | **0.30** | -0.09 | 0.13 |
| 자녀 양육 어려움 | 0.08 | -0.08 | -0.22 | 0.17 | -0.38 | -0.01 | **0.43** | -0.18 |
| 경제적 어려움 | 0.03 | -0.30 | -0.12 | 0.00 | -0.04 | **0.33** | 0.23 | 0.01 |
| 언어문제 어려움 | 0.09 | 0.01 | -0.06 | -0.30 | **0.58** | -0.19 | 0.28 | -0.05 |
| 한국생활준비 서비스 필요 | **0.84** | 0.06 | -0.01 | -0.09 | 0.07 | -0.01 | 0.00 | 0.19 |
| 사회적응교육 서비스 필요 | **0.87** | 0.06 | -0.08 | -0.03 | 0.01 | 0.00 | 0.01 | 0.16 |
| 통번역 서비스 필요 | **0.86** | 0.09 | -0.02 | 0.00 | 0.07 | 0.01 | 0.06 | 0.12 |
| 임신출산 서비스 필요 | **0.78** | 0.03 | -0.05 | 0.04 | 0.08 | 0.01 | 0.13 | 0.20 |
| 사회적응 서비스 필요 | **0.77** | 0.06 | 0.13 | 0.02 | -0.03 | -0.04 | 0.01 | 0.01 |
| 각종 상담 필요 | **0.83** | 0.07 | -0.02 | 0.05 | -0.04 | -0.04 | 0.06 | 0.02 |
| 직업훈련 필요 | **0.80** | 0.05 | 0.22 | 0.21 | 0.03 | 0.06 | -0.00 | -0.20 |
| 일자리 소개 필요 | **0.78** | -0.00 | 0.22 | 0.20 | 0.01 | 0.08 | -0.03 | -0.23 |
| 창업지원 필요 | **0.73** | 0.00 | 0.26 | 0.16 | -0.02 | -0.01 | -0.06 | -0.21 |
| 사회적 지위 상 | -0.03 | -0.13 | -0.08 | -0.23 | 0.29 | -0.10 | 0.24 | **0.47** |
| 사회적 지위 중 | 0.03 | -0.31 | **0.59** | 0.08 | 0.19 | 0.07 | 0.20 | -0.29 |
| 사회적 지위 하 | 0.00 | **0.72** | -0.11 | 0.12 | 0.04 | -0.16 | -0.32 | -0.00 |
| 노후준비 | 0.00 | 0.24 | 0.36 | 0.02 | 0.00 | **-0.47** | 0.00 | 0.37 |
| 고유치 | 6.51 | 2.44 | 1.88 | 1.69 | 1.42 | 1.39 | 1.30 | 1.25 |
| 누적 기여율 | 0.21 | 0.28 | 0.34 | 0.40 | 0.45 | 0.49 | 0.53 | 0.57 |

주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3] 농촌지역 농림어업종사 다문화이주여성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한계효과 분석결과

| 구분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 별로 만족하지 않음 | | 보통 | | 만족함 | | 매우 만족함 | |
|---|---|---|---|---|---|---|---|---|---|---|
| | 추정계수 | t-값 | 추정계수 | t-값 | 추정계수 | t-값 | 추정계수 | t-값 | 추정계수 | t-값 |
| 제1인자 | 0.005 | 1.10 | 0.003* | 1.73 | 0.028** | 2.25 | -0.001 | -0.75 | -0.031** | -2.29 |
| 제2인자 | 0.002 | 1.24 | 0.012*** | 2.63 | 0.121*** | 9.30 | 0.005 | 0.82 | 0.132*** | 10.31 |
| 제3인자 | -0.002 | -1.24 | -0.015*** | -2.64 | -0.145*** | -11.59 | 0.006 | 0.84 | 0.157*** | 11.94 |
| 제4인자 | 0.001 | 1.18 | 0.006** | 2.39 | 0.059*** | 4.90 | -0.002 | -0.84 | -0.065*** | -4.80 |
| 제5인자 | 0.000 | 0.93 | 0.001 | 1.22 | 0.016 | 1.31 | -0.000 | -0.74 | -0.018 | -1.31 |
| 제6인자 | 0.001 | 1.25 | 0.008** | 2.55 | 0.082*** | 6.25 | - 0.003 | -0.83 | -0.089*** | -6.41 |
| 제7인자 | -0.001 | -1.18 | -0.005** | -2.32 | -0.056*** | -4.62 | 0.002 | 0.83 | 0.061*** | 4.56 |
| 제8인자 | 0.000 | 1.15 | 0.002 | 1.52 | 0.025** | 2.11 | -0.001 | -0.80 | -0.027** | -2.07 |

*** p<0.01, ** p<0.05, * p<0.1
주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고문헌


[1] 강혜정(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38(1) : 1-20.

[2] 김기홍(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1(2) : 49-102.

[3]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4] 조원지·정치형(2022),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일자리 궤적과 농촌 일자리 지원정책 방향”, 「인문사회 21」 13(2) : 2535-2546.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2024년 농업전망」.